

완도산 광어 전국시장 공략 나섰다

‘범국민 광어사랑 운동’ 선포식…대전·인천 등 돌며 소비·판촉

완도군이 수입화어 급증과 사료값 인상, 소비부진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광어양식 어민들을 돋기 위해 본격적인 수도권 시장 개척에 나섰다.

완도군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광어 & Love 범국민 광어사랑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종식 완도군수를 비롯해 김영록 국회의원, 김명규 전남서남부 어류양식수협장, 배종하 농림수산식품부 국장,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광어·다시마·전복 면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에 이어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어 양식 어민을 위해 광어사랑 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회견과 광어 명예면장 위촉,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 다양한 광어 요리 시식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우리나라 대표 양식 수산물인 광어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사료값 인상, 수입화어 급증으로 값이 폭락해 양식 어민들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며 “원기회복 등에 효과가 있는 최고의 보양 식품인 광어를 많이 먹자”고 제안했다.

군은 선포식에 이어 다음 달까지



완도군이 지역 양식업계 회생을 위해 4일 서울에서 범국민 광어사랑 운동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수산물 판로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공략하고자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일 나들목 부근에서는 ‘광어 할인 특별행사’를 매일 하고 완도 해변공원에서는 국내 최저가로 질 좋은 광어를 맛볼 수 있는 주말 맥을거리 장터도 운영한다.

이 밖에 대기업과 식품회사, 대형상점 등 소비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와 수출, 드라마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어 판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광어 산지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40%까지 폭락한 데 비해 사료 값은 25% 이상 올라 양

식어민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완도군은 지난 6월 서울 코엑스에서 온 국민이 전복 한 개씩을 먹자는 ‘5500 전복 먹기 운동’ 선포식을 전개하는 등 전복 판로 확보에 나서 물량이 없어 못 팔 정도로 성과를 거뒀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울돌목 거북배’ 공공디자인 최우수상

전남도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울돌목 거북배’가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공공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공공디자인 엑스포에서 ‘울돌목 거북

배’가 공공기관 공공시설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번 엑스포에서 울돌목 거북배는 명량대첩대축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동력으로 삼은 ‘친환경 녹색디자인’을 체택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행기자 redplane@

영광 굴비·송편 ‘효도 상품’

지난해 매출액 급증…식료품 제조업 성장세

경기 침체에도 특산품인 굴비와 모식잎 송편 소비가 늘면서 영광지역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내 공업과 제조업의 사업체 현황(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이 1천632억8천만원에서 1천804억3천만원으로 10.5% 가량 증가했다.

업체 수는 88개소에서 95개소로 늘었으며 월평균 종사자 수도 695명에서 74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비 제조업과 모식잎 송편 등 떡 제조업이 증가세를 주도해 2006년에 비해 매출액이 급증했다. 굴비 제조업을 포함한 어류 업장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의 61%를 차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영광 굴비와 모식잎 송편으로 주력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활力求업이 본격화하면 이를 제조업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광=조의상기자 ischo@

마실수록 기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환성산소를 없애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곡성군, 앤텍바이오와 MOU

항생제·살균제 사용 억제

곡성군과 (주)엔텍바이오(대표 박세준)가 4일 자연순환형 친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 고품격 축산물을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주)엔텍바이오는 항염 및 항생효과가 매우 뛰어난 20여 종류의 특허받은 미생물인 SJP미생물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가하는 항생제 대체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항생제 대체물질인 SJP미생물은 양돈, 양계, 한우농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인 질병방어방과 분뇨처리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폐사율이 높은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PRRS) 등의 질병까지 단기간에 치유해 양돈 폐사율 40%를 3% 이내로 감소시키는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또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를 퇴치해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10% 이상의 사료비용 절감은 물론 소화효율을 제고로 축분 발생량도

자연순환형 친환경시스템 구축 협약식

2008. 11. 4.



곡성군이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4일 항생제 대체물질 생산업체인 (주)엔텍바이오와 협약을 체결했다.

1/3가량 감소하는 ‘기적의 친환경 축산물’로 주목 받고 있다.

기존 방식으로 폐지를 사용할 경우 200~220일을 기어야 출하가 가능한 반면 앤텍바이오 기술을 적용하면 160~170일이면 출하할 수 있어 평균 40일 이상 출하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조령래 곡성군수는 “엔텍바이오 기술 도입으로 고품격의 차별화된 명품브랜드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출하할 수 있게 돼 축산농민들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道 ‘2011 민속문화의 해’ 사업기관 선정

35억원 투입…학술조사·문화상품 개발 등 추진

전남도가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1 전남민속문화의 해’ 공동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은 사라져가는 지역 민속문화의 연구·보존 및 발굴을 통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상품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전남도의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으로,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20억원 등 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된다.

1차년도인 2010년에는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사업을 추진하고 2차년도인 2011년에는 ‘지역문화의 해’ 선포와 함께 전시회, 학술대회, 문화상품개발 등 분야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포함한 주진위원회를 구성해 자문과 협조를 얻을 계획이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2010 F1 그랑프리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전남의 잠재적 문화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

나주 노안농협, 벼 조기수매 등 일손 덜기 나서

나주 노안농협(조합장 우대봉)이 조합원들의 일손을 덜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노안농협은 최근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를 골반으로 수매하는 조기수매를 실시했다.

조기수매는 타 조합보다 3개월

가량 빠른 것으로 수매할 때까지 곡물을 저장해야 하는 등의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수매 방법도 전국 최초로 800kg 단위로 수매하는 툳박 수매로 변경해 일일이 40kg 포대에 담아서 출하 해왔던 수고를 덜수 있게 됐다.

노안농협은 또 최근 면지역 활

성화를 위해 자체 예산을 들여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열린 한마당 큰잔치에는 1천4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남성 헤어 大山프리모남녀가발
기능장 1호 타사제품 보상판매
행복도 행복 사람 세상 행복

